

## 김종석 팀장 모두발언

- 여러 가지로 부족한 제가 민간 공동팀장으로 고명하신 여러위원님들과 부총리님, 경제부처 장관님들을 모시고 경제 규제혁신 TF에 참여할 수 있게 된 것을 무한한 영광이자 큰 책임으로 생각
- 규제개혁이 주요 국정과제로 추진된지가 30년이 넘었지만, 아직도 우리나라 규제 제도가 국내외적으로 높은 평가를 받고 있지 못한 것은 아쉬운 일
  - 오늘 출범하는 경제규제혁신 TF가 역대 정부의 규제개혁 과정 경험을 바탕으로 이번에는 가시적이고 체감할 수 있는 성과가 나오기를 기대합니다.
- 그동안 규제개혁 추진의 한계로 지적되었던 점의 하나는 민간이 건의하고, 규제권자가 수용 여부를 판단하는 소위 시혜적 규제개혁이었기 때문
  - 이제는 규제의 필요성과 규제수단의 적절성을 민간의 눈높이에서, 피규제자의 관점에서 검증해야 할 것이며 이 과정에서 TF에 참여하신 민간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역할과 기여를 부탁
- 규제는 감춰진 세금 → 간단한 한 줄짜리 규제라도 규제 받는 국민의 입장에서는 돈과 시간, 노력이 들어가는 사실상의 세금
  - 앞으로 규제혁신은 국민과 기업의 규제 준수 비용을 획기적으로 줄여 사실상의 감세효과를 내도록 해야 할 것
  - 없애고 줄이는 것 만이 규제혁신이 아니며, 특히 요즘과 같은 인플레이션 하에서는 생산 공급 유통과정에서 규제로 인한 비용 상승요인을 해소하는 것도 물가 안정에도 기여할 것임

- 또한 시장과 기술이 빠르게 변화하고 있는데, 이 변화에 따르지 못한 낡은 아날로그 시대의 규제들을 걷어 내야 할 필요
  - 특히 성역화되어 있는 소위 덩어리 규제들은 새로운 사업 기회와 일자리 소득 창출 기회를 막아 우리 경제에 적지 않은 기회 손실을 초래
  - 민간과 기업들이 원하는 거래 상대방과 원하는 조건으로 경제 활동을 할 수 있도록 해주는 것이 우리가 지향하는 자유시장 경제의 원칙이고 규제혁신의 기본 방향이 되어야 할 것
  
- 지금 우리나라 경제는 복합적인 어려움에 처해 있음
  - 수입 에너지와 곡물 가격 상승, 코로나 팬데믹이라는 외부로부터의 충격으로 물가상승과 경기침체의 어려움을 겪고 있음
  - 우리 스스로 에너지 가격과 원자재 가격을 낮출 수 없다면, 이에 대처하는 방법은 우리 경제 내부적으로 효율성과 생산성을 높여 비용상승 요인을 흡수하고 생산성을 높이는 수 밖에 없음
  - 바로 규제혁신이야말로 지금 한국경제의 어려움을 극복하는데 가장 효과적인 처방이라고 생각
  
- 경제가 어려울 때가 오히려 개혁의 좋은 기회가 될 수 있음
  - 모든 개혁이 그렇지만, 규제개혁이야말로 쉬운 개혁이 아니며, 적지 않은 저항과 논란이 있을 것이나, 규제혁신은 이를 극복하는 과정
  
- 오직 국민 편익과 경제활성화를 위해 용기를 내시고 힘을 모아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
  - 그 어느 때 보다 규제혁신에 대한 국민적 관심이 높은 만큼, 저도 미력하나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.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부탁드립니다